

뜨거운 당권 경쟁...미지근 호남 민심

더민주 대표 ‘이래문’...호남 민심 주목할 역동성 없어

최고위원 호선 방식도 요인...컷오프 결과 막판 흥행 변수

더불어민주당의 당권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좀처럼 호남 민심의 주목을 끌지 못하고 있다. 당장 ‘이래문(이래도 저래도 문재인)’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당내 친문(친 문재인) 표심이 당권의 향배를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호남 민심의 주목을 끌만한 ‘역동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아직까지 호남 민심 기저에 깔린 ‘비 문재인 정서’가 호남 흥행 저조에 일조를 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과거 ‘박지원-문재인’ 구도처럼 상징성 있는 빅매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도 호남 민심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주요 요인이다. 범전문·주류 성향 주자들(송영길, 추미

애, 김상곤)의 당권 경쟁 속에서 후보 등록 마지막 날 비주류의 이종걸 의원이 참여, 간신히 컷오프를 치르게 됐지만 호남 민심은 미지근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일부 주자들의 친문 표심에 대한 지나친 구애도 호남 민심의 비판을 사고 있다. 당권 주자로서 정권 창출의 비전 마련을 위해 당내 주류 세력을 과감히 비판하거나 새롭게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호남을 중심으로 친문 표심에 대한 과도한 구애 행각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자 일부 주자들은 중도 및 무계파를 표방하며 당내 주류 세력과 거리를 두는 촌극도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당내외에서는 경선이 막판으로 갈수록 유력

당권 주자들이 친문 표심 잡기에 발 벗고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당 대표 경선 방식이 대의원 45%, 권리당원 30%, 일반당원 25%(국민 여론조사 15%·당원여론조사 10%)로 정해진 것도 흥행 부진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일반 당원 및 국민의 참여가 대폭 제한되면서 좀처럼 분위기가 살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최고위원 선출이 권역별 시도당 위원장들 간의 호선으로 치러지는 것도 호남 민심의 주목을 끌지 못하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호남의 차기 주자나 대표성을 갖춘 인물을 전국적인 경쟁을 통해 최고위원으로 선출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오는 5일 컷오프를 통해 본선 대진표가 나온다면 분위기는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호남 주자가 한 명으로 압축되거나 비주류의 이종걸 의

원이 분전하는 구도가 형성된다면 막판 흥행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당권 주자들은 5일 컷오프를 앞두고 예비경선 선거인단의 2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의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다. 특히, 더민주 기초단체장협의회는 5일 예비경선 실시 직전 회동을 갖고 컷오프에 대한 의견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예비경선에서 본선 진출자만 가리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순위와 득표 수까지 알려질 수 있어, 당권 주자들은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예비경선이 전자개표가 아닌 수개표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각 후보 측 참관인의 개표 참관이 불가피, 비밀이 지켜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추경 심사 일정도 못잡은 여야

누리예산·세월호특조위 활동 연장 놓고 평행선

여야 3당은 1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일정을 비롯해 8월 임시국회의 주요쟁점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 추경 심사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한 연장 문제 등 8월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의사 일정과 처리 현안을 논의했으나 누리고정 예산 편성과 세월호 특조위 기한 연장을 둘러싼 현격한 입장차만 확인했다.

더민주의 박 수석부대표는 기자들에게 “7월에 (세월호) 선수 들기가 시작돼 9월 중에 올라온다”며 “(여당이) 특조위 기한 연장에 전향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8월 임시회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의 김 수석부대표는 “특조위가 1년 6개월간 조사 활동을 하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특조위 활동기한은 6월말로 끝났다”며

특조위 기한을 연장하는 대신 여야 의원이 참여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추경 심사와 누리고정 예산 편성을 놓고도 여야는 평행선을 걸었다.

새누리당은 추석 연휴 전 추경 자금 이 집행되려면 여야가 합의한 대로 오는 12일까지 추경 심사를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더민주는 오는 26일까지 합의해도 자금 집행에 무리가 없다고 맞섰다.

더민주는 특조위 기한 연장을 비롯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누리고정을 포함할 것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및 검찰개혁 관련 국회 특위 설치, 시위 중 부상한 백남기씨 관련 정문회, ‘서별관 회의’ 청문회, 대법관·경찰청장 인사청문회 등 7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국민의당도 누리고정, 사드특위, 검찰특위 등 일부 쟁점에 대해 더민주와 보조를 맞추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성주에 간 국민의당지도부 “사드 철회 함께 싸우겠다”

의원 등 30여명 대거 방문

포대 입구 전학·주민 의견 청취

공수처TF→檢개혁TF로 확대

국민의당 지도부는 1일 정부가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포대를 배치하겠다고 밝힌 경북 성주군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는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성식 정책위 의장과 주승용·조배숙·권은희 등 비대위원 10명, 정동영·이동섭·이용주·송기석 등 소속 의원 10명이 참여했다. 또 13명의 대구·경북·인천 지역위원장도 함께했다.

이들은 성산 포대 입구를 둘러본 뒤 성주군청에서 주민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새누리당에서 정진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가 성주를 찾은 적은 있지만, 이처럼 당 지도부를 포함해 소속 의원들이 대거 방문한 것은 여야를 통틀어 국민의당이 처음이다.

그간 사드 배치와 관련해 강경한 반대 목소리를 내온 국민의당의 이번 성주 방문은 야당으로서의 생명성을 더욱 부각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박 비대위원장 일행이 성산포대 진입로에 내려 인사하자 성주군민들은 박수를 치며 “국민의당 최고”라고 추켜세웠다.

이에 박 비대위원장은 “늦게 와서 죄송하다. 하지만 여러분 뒤에는 국민의당이,



1일 오후 경북 성주군청을 찾은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 16명이 대강당에 입장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당은 주민들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연합뉴스

또 많은 국민이 함께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그는 “저희가 성주에 도착했을 때 성주는 좀 유별난 땅이 아닌가 생각했다”며 “그렇지만 성주 역시 똑같은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똑같은 농민들이, 똑같은 국민이 살고 있는 땅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평화롭게 여러분의 의사가 자유롭게 표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무췌록 성주라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

라 사드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성주군민과 함께 끝까지 우리 국민의당이 노력하겠다

는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또한,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현장 브리핑을 통해 성주군 사드대책위원회와 성주군민들이 문제를 제기한 국방부 측 제자와 관련해 “국회 상임위, 국방위원회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방문단은 이후 성주군수, 성주대

체위 등과 함께 간담회를 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이날 당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TF(태스크포스)를 검찰개혁 TF로 확대개편하고 위원장에 김동철 의원을 임명했다. TF 간사는 조선인 이용주 의원이 맡았으며 위원으로는 범조인 출신 의원과 범조계 원의 인사 등이 합류할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대통령 휴가 복귀...개각 초읽기

이번주중 단행 가능성...최대 7개 부처 전망

박근혜 대통령이 5일간의 하계 휴가를 마치고 1일 업무에 공식 복귀하면서 개각이 초읽기에 들어간 분위기다.

박 대통령이 집권 첫해인 2013년부터 매년 휴가에서 돌아온 직후에 청와대 비서진 또는 정부부처 장관을 일부 교체해온 관례가 지난해까지 이어져온 때문이다.

이번에는 휴가 전부터 박 대통령이 1년 반가량 남은 임기 말 국정 동력 확보 차원에서 7월말 또는 8월초 사이에 개각을 단행할 것이란 관측이 일찌감치 나왔었다.

따라서 구체적인 대상과 후보자에 대한 박 대통령의 최종 결단만 내려지면 이르면 이번주 중에도 개각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장관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 임명까지 최대 한 달 가까이 걸린다는 점, 9월 정기국회 전까지 내각 구성을 마무리하고 국정감사를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급주가 개각의 적기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미 후보군 인사김중 등 실무 차원의 준비작업도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개각 규모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문화

체육관광부 등 최소 3개, 최대 7개 부처의 중폭이 될 전망이다. 현 정권 들어 한번도 장관이 바뀌지 않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외교부도 유력하게 거론되는 부위이다. 여기에는 야당을 비롯해 정치권과 수차례 갈등을 빚어왔던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차관급)의 교체 가능성도 여권 내에서 거론된다.

또 박 대통령이 우병우 수석 거취 문제를 비롯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경제계를 중심으로 내수위축 우려 등이 제기되는 만큼 이에 대한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자금대출 대방출

자영업자를 위한 햇살론이 희망을 드립니다

대 상 자 : -3개월이상 영업중인 사업자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자영업자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3,0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대출한도 : 최대 2,000만원 (창업자금 5,000만원)

대출금리 : 4.7% ~ 4.9%

대출기간 : 5년(1년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정책자금 1,000억원 한도내 선착순 마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주유소사업소 720-2800

서양새마을금고